

김민재, 아시아 수비수 첫 발롱도르 후보 30인 선정



김민재

메시·홀란·음바페와 어깨 나란히 손흥민·호날두는 후보서 빠져 아시아 최고 기록은 손흥민 11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는 '철기둥' 김민재가 세계적인 권위의 축구 상인 발롱도르의 후보 30명에 선정됐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은 7일(한국시간) 올해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도 후보에 들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건 2002년 당시 벨기에 리그에서 뛰던 설기현, 2005년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박지성, 그리고 2019년과 2022년 손흥민(토트넘) 이후 김민재가 네 번째다.

손흥민은 2019년 투표인단으로부터 5순위 표 4표를 받아 4점으로 후보 30명 중 22위에 올랐고, 2021년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23골)에 오른 뒤 발롱도르 최종 11위로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김민재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역대 최초 아시아 수비수다.

일본 미드필더 나카타 히데토시는 1998·1999·2001년 세 차례 후보에 올랐고, 이라크 공격수 유니스 마흐무드는 2007년 발롱도르 후보로 지명됐다.

올해 30명의 후보 중 아시아 국적 선수는 김민재가 유일하다.

김민재는 발롱도르 명단에 함께 오른 리오넬 메시(인테 마이애미·아르헨티나), 엘링 홀란(맨체

스터 시티·노르웨이), 앙투안 그리에즈만(아를레티코 마드리드·프랑스),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잉글랜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폴란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브라질),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잉글랜드),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크로아티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수비수는 후방 디아스(맨체스터 시티·포르투갈), 요슈코 그바르디올(맨체스터 시티·크로아티아)와 김민재, 단 3명이 후보에 올랐다.

수상 횟수에서 메시(7회)에 이은 역대 2위(5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포르투갈)는 이번에는 후보 30명 안에 들지 못했다.

손흥민의 이름 역시 발롱도르 후보에서 빠졌다.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김민재는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K리그 전복 현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김민재는 베이징 귀안(중국)을 거쳐 2021년 페르메르바체(튀르키예)를 통해 유럽 무대를 밟았다.

철벽 수비로 주가를 높인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이탈리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고, 올 시즌을 앞두고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5000만유로·약 715억원)를 기록하며 '독일 명가'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다.

손흥민이 보유한 발롱도르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 11위를 김민재가 새로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발롱도르를 수상한 수비수는 2006년 파비오 칸나바로(이탈리아)다.

수상자는 내달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형우



나성범

최형우·나성범 '조용히 강하다'



조용히 강한 베테랑들이 KIA 타이거즈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KIA의 연승 기간 승리 만큼 의미 있는 부분은 '신구 조화'다. 박찬호, 김도영, 최원준 등 젊고 빠른 선수들이 부지런히 나가면 '베테랑' 나성범과 최형우가 결정적인 타격으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피드와 결정적인 한 방까지 더해지면서 KIA는 까다로운 상대가 됐다.

10년 만의 9연승을 이뤘던 기간 나성범은 38타수 15안타, 0.395의 타율을 찍었다. 최형우는 38타수 17안타로 무려 0.447의 타율을 기록했다.

높은 타율 만큼 영양가도 만점이었다.

KIA가 내리 9승을 만드는 동안 나성범은 4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6일 두산전에서서는 꺾임을 상대로 3회 선제 투런포를 날리면서 7-1 승리의 주역이 됐다.

특히 나성범은 이 홈런으로 전 구단 상대 홈런 기록도 달성했다. 종아리 부상으로 긴 공백이 있었지만 나성범은 시즌 47번째 경기에서 시즌 15호 포를 날리면서 전 구단을 상대로 모두 홈런을 뽑아내는 폭발력을 보여줬다.

단순 수치로 계산한다면 3.1경기 당 하나의 홈런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부상 없이 전 시즌을

KIA 9연승 기간 중 '불꽃타격' 나성범 0.395-최형우 0.447 나, 전 구단 상대로 홈런 폭발 최, 해결사답게 알짜배기 활약

소화했다고 가정한다면 35홈런 페이스다. 한화 이글스 노시환(6일 현재 30홈런)과 눈길 끄는 홈런왕 경쟁이 펼쳐졌을 지도 모른다.

최형우는 '해결사'라는 타이틀에 맞는 알짜배기 타격으로 박수를 받고 있다. 9연승 기간 최형우는 3경기에서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올 시즌 전체로 보면 13개의 결승타를 기록하면서 리그 1위다.

나이를 잊은 최형우의 올 시즌 득점권 타율은 0.362. 삼성 구자욱(0.409)에 이어 2위다.

리그를 대표하는 두 베테랑은 뜨거운 성적과 달리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다. 두 선수가 탄탄한 성적으로 팀을 뒷받침해주면서 눈길 끄는 수훈 선수가 매일 새로 탄생하고 있다.

나성범이 "올 시즌 수훈선수 인터뷰를 몇 번 못 했다"고 웃을 정도로 베테랑의 안정적인 활약 속 후배들의 인상적인 플레이가 KIA 연승 질주의 힘이었다.

개인 성적보다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두 베테랑은 분위기를 이어 후배들과 뜨거운 가을을 보내고 싶다.

FA로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날 나성범은 첫 번째 목표로 'V12'를 꼽았다. 새 팀에서의 첫 시즌, 나성범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나성범은 이날 아찔한 수비 실수를 했던 만큼 다음 기회를 버리고 있다.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욕심을 냈던 '최다타점' 기록을 갠 최형우에게는 '우승'이라는 목표만 남았다. 후배들도 "형우 형과 우승 한번 하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그라운드에서 성적으로 후배들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타선의 두 베테랑. 화려하지만 조연이 된 이들의 활약 속에 KIA 젊은 야수들도 자신감을 얻어 그라운드에서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두 선수는 '모범 FA'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 경기를 땀다"는 최형우의 철학은 후배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다. 웨이트 '괴물'로 통하는 나성범도 뛰어난 몸 관리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시즌이 끝난 후 나성범과 함께 운동하겠다는 후배들이 줄을 서서 '성범 스쿨'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팀의 주축 타자로 신바람 가을을 이끌고 있는 두 베테랑은 살아있는 교과서로 KIA의 미래까지 동시에 밝히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G대표팀 황선홍 감독 '공격 고민'

U-23 예선 카타르에 0-2 패 전문 스트라이커 부족 골머리

선수 시절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황선홍 감독이 동시에 이끄는 2024 파리 올림픽 대비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과 향후 아시아안게임 대표팀에서 모두 '공격 고민'을 겪고 있다.

황 감독은 경남 창원에서 올림픽 대표팀과 향후 아시아안게임을 모두 소집해 훈련을 지휘하고 있다. 올림픽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1차 관문에 해당하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아컵 예선에 들어갔다.

두 팀을 오가며 U-23 아시아컵 예선과 아시아안 게임 경기를 연이어 치러야 하는데, 뼈아프게 이어지는 실전의 첫걸음부터 만만치 않다.

올림픽 대표팀이 6일 U-23 아시아컵 예선 첫 경기에서 카타르에 예상 밖의 0-2 완패를 당하면서 출발부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자국에서 U-23 아시아컵 본선을 개최하는 카타르와의 대결이 친선경기로 간주하면서 예선 순위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로 황선홍호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잡지 못했다.

골키퍼의 실수 등으로 허무하게 실점한 수비도 아쉬웠지만, '강호'라고 부르기에 어색한 카타르를 상대로 안방에서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한 채 있다는 점이 더욱 당혹스럽게 다가온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슈팅 10개, 유효 슈팅 2개로 모두 카타르(슈팅 12개·유효 슈팅 5개)보다 적었다.

'광주FC 듀오'인 최전방 공격수 허율과 측면 자원 엄지성의 호흡이 초반에 반짝였고, 실점 이후 공격적 교체 카드가 다양하게 가동됐으나 결국 골로 연결되진 못했다.

황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공격적인 세밀함이 부족한 경기였다"는 진단을 가장 먼저 내렸다.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인 내년 4~5월 U-23 아시아컵 본선에 진출하려면 이번 예선에서 조 1위에 오르거나, 11개 조 2위 팀 가운데 상위 4팀 안에 들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9일), 미얀마(12일)와의 경기까 남은 가운데 카타르전에 나서지 않은 선수 중엔 '해외파' 정상민(미네소타) 정도가 공격진에 변화를 줄 만한 카드로 남아 있다.

황 감독은 "다음 경기는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공격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류현진 "홈런 맞은 공 제구는 잘 됐다...남은 경기 최선"

5이닝 2실점 아쉬운 패배 토론토, AL 와일드카드 3위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아쉬운 패배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시엄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5안타를 내주고 2실점 해 시즌 2패(3승)째를 당했다. 토론토는 2-5로 패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 뒤 스포츠넷 캐나다, A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오늘 투구는 괜찮은 편이었다"며 "홈런을 내준 공도 제구는 잘 됐다"고 말했다.

이날 류현진은 공 77개를 던졌고, 이 중 50개가 스트라이크였다. 볼넷 1개만 내줬고, 삼진 5개를 잡았다.

1-0으로 앞선 4회말 2사 후 카를로스 페레스에게 역전 투런포를 맞고, 토론토 타선이 침묵하면서 패전의 멍에를 썼지만 류현진은 견고한 투구로 5이닝을 채웠다.

올 시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커브의 구속을 시

속 100.6km로 낮추며 직구의 제구 속력을 높이고, 올 시즌 잘 던지지 않던 커터 구사율을 30%(23개)까지 늘리는 영리한 투구를 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류현진은 '앞'을 바라봤다.

이날 순위 경쟁팀 텍사스 레인저스도 패하면서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 3위를 지켰다.

AL 팀은 각 지구 1위에 오르거나, 지구 1위 총 3팀을 제외한 승률 상위 3위(와일드카드)안에 들어야 가을 무대를 누릴 수 있다.

/연합뉴스